

就 任 辭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趙 義 煥



激動하는 世界經濟와 눈부신 科學技術의 發展 속에서 辛未의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의 健康을 祝願하며, 研究와 事業에도 이 해가 生産의인 한 해가 되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尖端技術의 꽃이라 할 高分子技術의 發展을 新素材라는 材料로서의 概念뿐만 아니라 化學的, 生物學的 機能을 人工的으로 實現시키는 機能性 高分子라는 領域으로 까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Nylon이 發明된 以後 50~60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동안이었지만 참으로 엄청난 發展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高分子科學은 科學技術發展의 더 큰 主役을 擔當할 것이며 그 主導的 役割을 해 나갈 것입니다.

韓國高分子學會가 創立된지 이제 十餘年 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 여러 會員님들의 積極적인 聲援에 힘입어 長足の 發展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名實共に 韓國의 高分子科學界를 이끌어 나가며 그 重心點 役割을 하는 學會로 成長하였고 學界는 물론 產業界로 부터도 많은 會員들이 參與하고 있습니다. 學會의 活動도 이제는 多樣하고 活潑해져서 每年 여러가지 세미나, 강연회, 심포지엄, Workshop 등의 行事를 치르고 있고, 特히 產業界의 會員을 爲한 活動에 主力을 쏟고 있는 實情입니다. 1989년에는 IUPAC의 special topic symposium을 치렀습니다만, 1996年度에는 本格的인 multitopic IUPAC polymer symposium인 Macro 96(假稱)을 서울에서 開催하도록 豫定되어 있습니다. 韓國高分子學會는 이제 世界的으로 認定받는 學會로 자라났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때 學會의 事業에 貢獻도 없고 學問의으로도 微淺한 제가 會長職의 重任을 맡게 되어 期待되는 所任을 다 해나갈 수 있을런지 두렵습니다. 精誠을 다해서 會員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會員 여러분들의 많은 援助와 聲援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特히 產業界의 여러 會員님들의 特別한 配慮와 援助를 부탁드립니다.

今年에도 例年과 다름없이 定例 行事들이 主催 進行되었습니다만 學會의 運營이라는 面에서 變化의 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의 가을 臨時總會에서 認准된 바 있는 會長以下 任員들의 任期를 이제까지의 二年에서 一年으로 하는 單年任期制를 骨子로 하는 새로운 學會定款이 採擇되었습니다. 이 單年制의 導入은 그 間 꾸준히 論議 및 檢討되어 온 事項이고 이제 學會의 規模도 커졌고 運營도 定着되었으므로 여러 面에서 適切한 時期라는 것이 會員 여러분들의 意見이었습니다. 따라서 定款改定에 따라서 明年에는 새로운 會長 및 任員, 그리고 幹事들이 學會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學會事務室의 擴張 또는 移轉, 基金의 適切한 投資活用方案등 많은 問題들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研究 檢討해서 좋은 案이 나오는 대로 委員會의 추천을 얻어 여러 會員님들께 報告드리겠습니다. 이런 點에서 會員 여러분들의 좋은 意見을 提示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今年的 學會일을 맡아보게 될 運營幹事陣은 자랑할 만한 能力있는 분들로 構成하였습니다. 于先 運營 全般을 擔當할 事務理事에는 科技院의 金聖喆教授님으로 學會運營의 經驗이나 學術的인 業績에서나 더 없는 適任이라고 생각합니다. 幹事여러분을 紹介해보면 總務幹事에는 漢陽大의 任承淳教授, 財務에는 成均館大의 李斗性教授, 編輯에는 KIST의 姜龍洙博士, 韓陽奎博士, 組織에는 漢陽大의 金東國教授와 化學研究所의 李載洛博士, 企劃에는 崇實大의 李相源教授, 建國大의 許正霖教授와 仁荷大의 陳仁柱教授님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모두 能力있는 분들이어서 學會運營이 원활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會員 여러분들이 協助를 期待하면서 特히 產業界 會員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援助를 부탁드립니다.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